

글로벌 K ‘세계로 울리는 아리랑’ 진면목 선사

본보·아리랑국제방송 등 주관
경기 과천시 3대 아리랑 공연
관객들 호응…108개국에 송출
“아리랑 세계화·전승 앞장설것”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인 아리랑의 진면목을 알리는 공연이 경기도 과천에서 펼쳐졌다.

전남일보와 아리랑국제방송이 주관하고 진도, 정선, 밀양 등 아리랑 3대 연합회가 주최한 ‘세계로 울리는 아리랑’ 공연이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공연단은 아리랑을 주제로 한 무대를 선보여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우흥섭 진도부군수, 안석균 정선군 시설국장, 손영미 밀양시 관광진흥과장 등 관객 300여명이 호응을 보냈으며 공연실황은 향후 아리랑국제방송 통해 전세계 108개국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우흥섭 진도부군수는 “한국인에게 사랑받는 아리랑은 이제 글로벌 K-콘텐츠로 자리매김해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난 우리나라 대표 아리랑 3대 고장인 진도군·정선군·밀양시가 설립한 ‘대한민국 3대 아리랑 공동협의체’가 상호교류 등을 강화해 아리랑 세계화와 체계적 보존·전승을 위해 노력하고 전 세계인에 사랑받는 아리랑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진행된 ‘세계로 울리는 아리랑’ 공연에서밀양 감내계줄당기기보존회가 밀양아리랑을 선보이고 있다.

공연에는 △진도군립민속예술단 △국악인 이춘희 △피아니스트 양방언 △감내계줄당기기보존회 △국악그룹 온도 △국악인 민영치와 음악인 이시카와 토모히사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국악그룹 엑스 △아리랑 앙상블 △국악인 고영열 등이 출연해 특색있는 무대를 펼쳤다.

진도군립민속예술단은 지난 1993년만 들어진 첫 군 단위 예술단체로 진도 예향을 알리는 문화사절단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 진도아리랑 별곡을 선보였다.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예능 보유자인 이춘희는 유네스코에 아리랑 등재가 확정되는 날, 파리의 유네스코 회의장 무대에 올라 아리랑을 열창한 바 있다. 이번 공연에서 서울간아리랑, 구아리랑, 본조 아리랑을 선보이며 아리랑 본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다.

재일 한국인 2세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인 양방언은 대통령 취임식 주제곡 ‘아리

랑 판타지’를 작곡했으며 락, 재즈, 클래식, 국악 등의 다채로운 장르를 넘나들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 정선아리랑을 연주했다.

감내계줄당기기보존회는 밀양 감내에서 정월 대보름을 전후로 마을 사람들이 시합으로 즐기던 놀이인 ‘감내계줄당기기’ 보존을 위한 단체다. 2013년부터 국민대통합아리랑·아리랑대축제 등에 참여하면서 아리랑을 알리는데 힘쓰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 밀양아리랑을 선보였다.

JTBC 국악 경연 프로그램 풍류대장에 출연한 국악그룹 ‘온도’는 국악으로 재해석한 K-POP 무대를 선보이며 진도아리랑을 불렀다.

재일동포 3세 국악인 민영치와 일본의 음악감독이자 사운드 크리에이터 이시카와 토모히사는 콜라보 무대를 준비했다. 이번 공연에서 밀양아리랑(날 좀 보소)을 선보였다.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은 정선지역 토속적인 정서를 지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아리랑’의 멋과 아름다움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에서 정선아리랑 소리공연을 열었다.

퓨전국악그룹 엑스는 밀양아리랑을 편곡해 선보였다. 공연 중간에 상황에 맞는 연기와 사운드, 퍼포먼스를 추가해 차별화된 무대를 꾸몄다.

2012년 창단된 아리랑앙상블은 진도아리랑을 편곡한 ‘아리랑의 산책’을 선보였다. 피아노 치는 감성 소리꾼 고영열은 ‘새로 그린 아리랑’을 선보이며 대미를 장식했다.

한편 국민대통합 아리랑 공연은 지난 2012년 아리랑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계기로 마련된 행사다. 아리랑을 민족대통합 콘텐츠로 승화시키기 위해 전남일보 주최·주관으로 지난 2013년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우리나라 3대 대표 아리랑으로 인정받는 진도아리랑, 정선아리랑, 밀양아리랑 공연을 꾸준히 개최해 오고 있다.

도선인 기자

조선대 큐레이터 전공 학부생들 11~15일 ‘Ego 찾아 에고, 에고’ 전

전공 과제전… 조대 백학미술관

조선대학교 시각문화큐레이터 전공 3학년 학부생들이 참여한 과제전시 ‘Ego 찾아 에고, 에고..’가 11~15일 조선대 백학미술관에서 열린다. 사회가 품고 있는 문제들을 직시한 전시에는 13명 학부생들이 예비 큐레이터가 돼 참여한다.

이번 전시에는 회화, 미디어, 설치, 조각, 섬유, 도자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출품됐다. ‘Ego 찾아 에고, 에고..’라는 전시 제목은 자아를 인식하고 나와 타인의 관계를 재정비해 나를 둘러싼 세상을 이해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학부생들은 △고귀한 생명 △내면의 자아 직면 △치유받는 공간 △감정의 변화 △자아주체성의 상실 환경오염의 심각성 등의 주제를 선택해 참여작가를 선정하는 등 예술의 장을 펼쳤다.

전시장은 △생동만상 △발견! 내 안의 나! △부유하다, 피어나다, 완성되다 △MOMENT(모멘트) △자아결손 △너랑 나랑 어떡하지? 등 6개 섹션으로 구분된다. 1섹션 ‘생동만상’에서는 작가들이 생각하는 고고한 생명의 숨결과 생동하는 인간사를 전한다.

2섹션 ‘발견! 내 안의 나!’에서는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에 익숙해진 나 자신의 내면을 마주본다. 내면을 마주보면서 사회적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보고 감정에 솔직해지는 시간을 마련한다.

3섹션 ‘부유하다, 피어나다, 완성되다’에서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무거웠던 짐



심혜지 작 ‘A trickle down’.

조선대 제공

들은 잠시 내려놓고 치유와 위로의 공간을 경험한다.

4섹션 ‘MOMENT’에서는 나의 감정에 대해 재해석한다. 일상에서 나의 감정은 무엇이었는가에 주목한다. 이를 토대로 일상 속에서 나는 어떤 감정을 지나쳤는지 고찰한다.

5섹션 ‘자아결손’에서는 현대사회 요구 수준에 맞춰진 우리의 모습과 내면의 자아 사이 양면성을 보여준다.

6섹션 ‘너랑 나랑 어떡하지?’는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이야기한다. 계속된 환경오염 이후, 우리가 마주하게 될 상황과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생각해본다.

도선인 기자

가족, 연인, 친구들과 ACC서 연말 추억 함께

어린이문화원 트리 포토존 조성
20일 올 마지막 ‘브런치콘서트’
19~20일 자동차극장 영화 상영
23~24일 어린이 무용극 ‘루돌프’

올 연말을 특별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연말을 맞아 가족, 연인, 친구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하고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어린이문화원에 크리스마스 트리

ACC재단은 아이와 동반하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을 위해 ACC 어린이문화원 로비와 도서관, 체험관 입구, 어린이극장 등 곳곳에 크리스마스 트리와 포토존 등을 설치해 연말 분위기와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연출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어린이창작실험실 로비 유리중정 투명 OLED 미디어월에 어린이문화원 캐릭터 ‘시아와 친구들’을 배경으로 제작한 크리스마스 영

상을 상영해 어린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뮤지컬·전시 등 연말 문화예술 다채
매년 인기를 누려온 ‘ACC 브런치 콘서트’ 올 마지막 무대로 ‘뮤지컬 갈라 콘서트’가 20일 오전 11시 예술극장 극장2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에서는 섬세한 연기력과 카리스마 넘치는 노래로 사랑받은 뮤지컬 배우 이견명과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으로 청중을 압도하는 신영숙이 감동의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티켓 가격은 R석 3만원, S석 2만원이다.

19일과 20일 연말 분위기를 만끽할 친환경 자동차극장 ‘드라이브 인 ACC’가 ACC 부설주차장에서 열린다. 야외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이번 행사에서는 로맨틱한 겨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러브 스토리’와 애니메이션 뮤지컬 ‘팀 버튼의 크리스마스 악몽’을 각각 상영한다.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만 입장 가능하며 사전 예매가 필수다. 관람료는 무료이다.

(사)한국미술협회 광주시지회와함

계 오는 19일부터 ACC 어린이문화원 대나무정원에서 협력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박광구, 양재영, 고근호, 문기연, 최순임 등 5명의 지역작가가 참여해 ‘어린이와 가족’을 주제로 한 조각 작품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ACC를 방문하는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들에게 미술작품을 쉽고 친숙하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기는 연말 공연

크리스마스를 맞아 오는 23~24일 오후 2시 ACC 어린이문화원 어린이극장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린이 무용 ‘루돌프’를 선보인다. ‘루돌프’는 태어나 처음 문화예술을 접하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극장 접근성을 높이하고자 마련한 ‘난생처음 시리즈’ 올 마지막 작품이다. 공연을 보는 동안 아이들은 ‘빨간 코’가 아닌 ‘빨간 엉덩이’ 원숭이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함께 하며 새롭고 놀라운 풍경을 마주하게 된다.

도선인 기자

